

# 45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사무엘상 18장 1~5절, 19~20장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용감하게 골리앗을 물리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며 자신의 겂옷과 군복, 칼, 활 그리고 락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마다 항상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안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울 왕에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십니까? 다윗은 왕께 잘못된 적이 없고,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성경 암송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사무엘상 18:3)

그러나 사울 왕은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친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러 돌아와 말하였습니다.

“요나단! 왕이 왜 나를 죽이려 하나요? 내가 왕에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말해 주세요.”

요나단은 피로워하는 다윗을 위로하며 말하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네게 알려 주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로 죽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너의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거든 너는 나와 내 가족을 생각해 은혜를 베풀어 다오.”

다음 날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을 알았습니다.

요나단은 약속대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둘은 서로 매우 슬피하며 울면서 작별하였습니다.

“잘 가라, 사랑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함께 계실 것이다!”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닐 때에도 다윗을 찾아가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였습니다. 친구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나의 친구, 예수님



구원받은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을 찾아 적고, 그 친구가 나를 위해 한 일을 아래에 써 보세요.



## 오늘의 말씀을 배우고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의 신앙생활을 도와줄 수 있는 우정을 만들어 가요.



여러분에게도 다윗과 요나단같이 서로를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나요?  
그 친구를 소개해 보세요.

###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 이름:

♥ 구원일:

♥ 우리는 이렇게 처음 만났어요!

♥ 내가 이 친구를 좋아하는 이유는?

♥ 우리는 만나면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해요.

♥ 나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앞으로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 알아볼까요



## 진짜 친구

서로를 정말 사랑하는 친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같이 등산을 가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김밥, 간식, 물을 챙겨서 좋은 경치를 감상하며 산길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을 가던 이들 앞에 산에 사는 커다란 곰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혼자 재빨리 옆에 있던 높은 나무에 기어 올라가 숨었습니다. 밑에 혼자 남게 된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숨을 멈추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가만히 엎드려 있었습니다.

커다란 곰은 누워 있는 친구에게 바짝 다가와서 뭐라고 속삭이고는 그냥 가 버렸습니다.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친구는 얼른 내려와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곰이 자네에게 뭐라고 속삭이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던가?"  
그러자 땅에 엎드려 있던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곰이 자네같은 사람과는 친구하지 말라고 하더군."



부모님난

선생님난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parent response.

Blank rounded rectangular box for teacher response.